

<2011년 4월 24일 부활절 주일말씀>

부활의 기쁨

본 문 베드로전서 3장 18-20절

누가복음 24장 1-10절, 33-53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배웠고, 부활에는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으니 잘 듣고 영도 육도 말씀에 해당되는 대로 여러 가지 부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1>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부활절은 나 예수가 만민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을 다시 만난 기쁜 날이다. 이를 알고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해마다 부활 주일을 정하게 하였다. 부활 주일은 나의 부활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다.

나의 재림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듯이, 나의 부활도 제대로 알고 맞고 나 예수를 대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나의 뜻대로 온전

히 행하여 영도 육도 그에 해당되는 부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자들은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억지로 풀어 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정이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예언하셨다.” 하면서, 내가 33세 때 예정대로 만민을 위해 죽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알고 말하고 믿는 자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바보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요, 마귀의 이론을 펴는 자들이요, 나와 내 아버지를 거스르는 무지한 자들이요, 죄를 범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다.

내 말을 들어 보자.

나는 그 당시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며 그 시대 사람들로 인하여 갖은 고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예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내게 고통을 주고 창피를 주고 억울하게 하도록 하셨단 말이나.

또한 가롯 유다는 나를 불신하고 불신자들에게 팔아넘겼다.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예정해 놓으셨다면, 나를 불신하고 팔았던 가롯 유다와 그 시대에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며 갖은 고통을 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죽이는 사역자로 쓰셨단 말이나.

그렇지 않다. 그 시대에 말 한 마디로라도 나를 괴롭게 하고 거스른 자, 괴롭힌 자, 갖은 고통을 주며 때린 자, 나를 비웃은 자, 나를 야유한 자, 나를 따랐던 자들까지 괴롭히고 고통을 준 자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나, 안 믿었던 자들이나, 그 당시 권력이 있어 권력으로 나를 다루었던 자들이나, 종교 주권자들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반대하고 괴롭게 한 자들은 모두 죄를 지은 자들로서 메시아를 죽이는 살인에 가담한 자들이다.

나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육신을 통해 생명을 살려야 되기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와서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하여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려 했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육신을 내어 주고 영으로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나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고 따랐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중심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이 뻗어 가서 온 세상 모두 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그 당세에 나의 뜻이 이루어져 육의 천국, 마음의 천국, 영의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였기에 나의 육신을 죄인을 대신하여 내어 주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는 내 영은 하늘로 승천해 버리지 않았느냐.

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구시대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불신했다. 그들로 인하여 나를 따랐던 자들을 제외한 그 시대 모든 자들도 나를 불신하고 핍박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불신했다.

아담 이후 4000년의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나 예수를 보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려 했건만, 그들은 나를 불신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말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 예수를 믿고 따랐다면 모두 아들급으로 시대적 부활을 하여 구원받았겠건만, 결국 불신함으로 그 육도 영도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시대는 나를 악하게 대했다. 그러나 시대가 나를 악하게 대한 행위대로 그냥 심판하여 멸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행위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몸을 내어 주고 죽어 주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육신도 마음도 내어 준 바가 되었다.

메시아를 핍박하고 악평하는 자들을 보시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강도

20의 지진을 일으켜 죽일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어 다 멸할 수도 있으시건만, 나는 이 세상에 ‘구원’을 목적하고 왔으니 그들이 악한 대로 대신 죽어 주고 그들이 나 예수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도록 생명길을 열어 주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왔을 때 일어날 일을 성경에 두 가지로 예언해 놓았다. 하나는 나의 제자들같이 나를 믿고 시대가 나를 따르면 ‘영광의 주’로 와서 다윗같이 시대를 잡고 왕 노릇 한다고 예언했다(사 9:6-7). 또 하나는 그 시대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악하게 대하고 불신하면 ‘고난의 주’가 된다고 예언했다(사 53:3-12).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불신하여 나를 죽임으로 나는 ‘고난의 주’가 되었다. 이같이 죽으니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죽음이 예정됐다. 예정대로 죽었다.”라며 성경을 푼 것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나를 불신하고 죽였어도 나는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의 죄와 시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면서 나의 마음과 몸을 내어 주었다.

너희는 아담과 하와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의 죄 아래 그 주관권에서 태어났으므로 선조의 죄에 따라 죄의 자손이 되었다. 그같이 너희 신앙의 선조들이 나 예수를 죽임으로 너희도 나 예수를 죽인 주관권에서 태어나 죄의 자손이 되었다. 고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다 나를 믿고 사랑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자들은 부활된 자로서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고 각종 축복을 받고 살았다.

너희 조상이 사람을 살인하여 살인한 가문의 자손이 되었다면 좀 끔찍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집안의 사람과는 결혼하기도 꺼려질 것이다. 또 자기 애인이나 친구의 부모가 사람을 죽인 자라면 그 애인과 친구를 가까이할 때마다 꺼려질 것이다.

지금도 나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나 예수를 죽인 살인한 자손에 속해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죽은 자들이다. 그들은 영도 실제 사망권에 속한 영으로 살고

있고, 육도 세상 사망권 속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죽은 자들이다. 사망권 속에서 사망의 짓값을 받고 살고 있다.

이들이 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나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면 짓값을 벗어나게 되고 부활한 자가 된다. 너희는 시대 말씀에 따라 나를 믿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신부가 되어 사니 시대 신부로 부활한 자들이다.

또 아담 하와는 너희의 선조가 아니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로 인하여 그들과 그 자손들도 사망권 속에 죽은 자들이다. 또한 아담 안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성의 타락으로 죽은 아담과 하와 아래 있는 자들은 이성으로 죽은 자들로서 계속해서 이성의 죄를 지으며 세상에서 살고 있다.

구시대 사망권을 벗어나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 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산 자가 된다. 부활한 자가 된다. 이들의 영과 육은 사망권에 있지 않고 생명권 속에 있다. 그러나 형식과 외식으로 나를 믿으면 생명권에 속한 살아 있는 영과 육이 되지 못한다. 육신이 살았어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시 죽은 자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영상2>

<자막> 성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 22:2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9-1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 8:19)

<자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정이 아니다.

①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비웃는 모습

<자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역자로 쓰셨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모습

<자막>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죽인 것이다. / 시대가 악하여 인간이 책임분담을 하지 못하여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②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 믿는 자들

죽은 자들 부활하여 산 자들

<자막과 말씀> 내 말을 듣고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은 자다.

③ 아담과 하와의 주관권 / 예수님 주관권

<자막과 말씀> 아담 하와의 주관권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다.

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 자다.

④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름으로

못 박아 죽인 자들의 주관권 / 새 역사로 나온 자들의 주관권

<자막과 말씀> 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의 주관권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다. / 시대 말씀을 듣고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는 산 자다.

나의 육은 십자가에 매달려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어 주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곳은 노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홍수 심판을 받고 육신이 죽은 자들의 영들이 사는 영계다. 그곳은 지옥은 아니다. 지옥은 다시 구원할 수 없는 곳이다. 영원한 사망의 세계다.

어떤 자들은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하여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자들 역시 진리의 소경이

요, 외람된 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곳은 지옥에 가기 전의 세계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의 육은 심판받았으나 영은 살리기 위해서 영적 기회를 준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눅 24:7).’ 라는 성경의 예언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 제자들에게 보였다. 나는 영으로 나타났으니, 제자들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몰랐다. 고로 지진도 일으키고 각종 표적을 일으켜 내가 나타남을 알렸다. 해변가에서, 혹은 방에서 나타나 제자들에게 나를 보여 주었다.

육신은 물질이니 정한 대로 물질로 돌아가고, 영은 생명권의 산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보인 것이다. 그때 나의 모습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 육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때 제자들은 부활한 영광의 영체를 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광의 영체로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그리고 나의 영체는 천국 보좌에 성자로서 좌정하여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나의 복음을 전했다. 나는 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과 계속 함께하고 내게 합당한 자들을 나의 육으로 쓰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육신이 살아 있을 때보다 100배, 1000배 더 활동하며 역사를 폈다.

참깨의 기름을 짜면 기름으로 다 빠져 나오고 찌꺼기는 깻묵(기름을 짜고 남은 깨의 찌꺼기)으로 남듯이, 인간이 죽으면 그 육체는 시체로 남아 땅으로 돌아가고, 정신과 마음과 혼은 기름 짜듯 짜져서 영체와 일체 되어 영으로 부활된 자가 된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다. 육신의 생명은 마음, 생각, 정신, 혼이다. 육신의 생명인 마음, 생각, 정신, 혼이 선하여 자기 영체로 옮겨지면 그 영은 생명권으로 가게 되어 천국이나, 낙원이나, 선영계로 가게 된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인 마음, 생각, 정신, 혼이 악하여 자기 영체로 옮겨지면 그 영은 사망권으로 가서 멸망을 받게 된다.

영체는 자기 육체를 기본으로 닳아 변화된 몸이다. 육에 속한 자기

마음, 생각, 정신, 혼이 생명권으로 부활된 자를 두고 ‘육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사탄과 악행자들과 무지자들은 나를 불신하고 꺾박하고 반대함으로 나의 육체를 가져갔지만, 성경 말씀대로 육은 죽임을 당하고 영은 살리심을 받아 육이 영의 몸으로 살아났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펴왔다. 이로 인하여 나를 따라 구원길을 오는 자들은 나의 십자가 노정을 겪으면서 구원길을 오게 되었다.

<영상3>

- 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 / 우측 강도가 예수님 시인하는 모습 / 그리고 돌아가시는 모습 / 예수님의 육신을 장사하는 모습을 연결하여 간단하게 표현

<성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42-43)

<자막과 설명> 예수님의 육신이 돌아가시고 육신을 장사 지냈을 때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한 오른쪽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셨습니다.

- ②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간 장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성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

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1-7)

③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시고,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 등)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21장 참고하여 해당 영상 넣고, 해당 성구를 넣기.

④ 노아의 날 물로 심판받아 죽은 자들의 영들이 사는 영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성구>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베드로전서 3:18-20)

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

<성구>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지 시니) /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50-52)

⑥ 그 후 영의 몸으로 사역자들을 육으로 삼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펴 오신 모습

<자막과 말씀> 나의 육신은 시대의 불의한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부활 후에 영의 몸으로 시대 사역자들을 나의 육으로 삼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펴 왔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하여 몇 가지를 더 말할 테니 그동안 내가 너희 선생을 통해 가르쳐 주어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듣기 바란다.

성경에 육신이 살아난 부활에 해당되는 자들은 몇 명 안 된다. 내 육신이 살아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육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소수였다. 성경에는 무엇을 두고 ‘부활’ 이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자.

<합독> (요 5:24-29)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요한복음 5장에 말한 ‘부활’의 참뜻을 너희 선생에게 가르쳐 시대에 외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부활했다.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이들이 나 예수를 메시아로 진정 믿고 내 아버지를 믿고 섬기며 성령의 역사 속에 구원받고 살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부활된 자가 된다.

섭리역사의 너희들은 재림역사 신부 시대를 따라서 나의 신부들로 부활된 자들이다. 내가 보낸 자는 먼저 나의 신부로서 조건을 세웠다. 너희 선생은 신부의 첫 열매로 부활되었다. 고로 나는 너희 선생을 나의 사역자로 삼아 시대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너희를 이 시대 신부들로 부활을 시켜 왔다. 30년 동안 그같이 해 온 것이다.

너희 중에는 온전히 부활된 자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부활된 자들도 있고, 그 차원이 모두 제각각이구나. 너희가 이 시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만큼 온전히 부활되고,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신령하여 나와 일체 되어

사랑하는 만큼 온전히 부활된다.

너희는 이 시대 성약역사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재림의 역사를 준비함으로 부활되어 30년 동안 섭리역사를 펴 왔다. 섭리역사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선포하지 않은 시대 성약의 말씀이다. 고로 세상에 어떤 말씀이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다.

지금도 나 예수를 거스르고 유혹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가르치며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는 그들의 유혹을 받아 섭리사를 떠나지 말아라. 그 어떤 이론에도 넘어가지 말아라.

계시록 7장 3-5절의 말씀을 그릇되게 주장하며 나의 재림의 14만 4천 명만이 나를 맞는다고 이상한 이론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유혹되지 말아라. 나 예수가 말하였으나 믿지 않으면 나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

14만 4천 무리가 누구냐. 시대 말씀을 듣고 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신부로서 준비한 자들이다. 너희가 이 시대 나의 재림을 위해 인 맞은 자들이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인 맞은 자들이다.

구약 4000년은 사망권 속에 죽어 있는 시대였다. 종급 시대였다. 종의 몸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4000년 구약시대가 끝나고 나 예수가 와서 신약의 새 복음을 전했을 때 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따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은 시대 신약권으로 부활되었다. 그 육도 영도 구시대 구약 사망권에서 나와 새 시대 신약 생명권으로 부활된 것이다.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나는 영의 몸으로 2000년 동안 신약역사를 펴 왔다. 이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는 성약역사의 때가 왔고, 그 역사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이 시대 신부급의 성약 말씀을 듣고 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신부로 예비하고 사는 자는 이 시대 부활한 육과 영이 되었다. 구시대 신약의 사

망권에서 새 시대 성약의 생명권으로 부활되었다. 아들급에서 신부급으로 부활되었다. 시대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 자들을 두고 그 차원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다. 부활은 영과 육의 변화요, 새로운 세계다.

섭리역사는 성약 1000년 역사의 기초가 된다. 너희 당세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후대인들이 1000년 동안 계속해서 나의 재림의 역사, 신부급 역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 2000년 동안 신약 역사를 펴 왔듯이 역사를 펴 나간다.

너희 영과 육을 보면 어떤 것은 온전히 부활되었으나, 어떤 것은 아직도 미완성된 것도 있다. 모두 행해야 완전히 부활된다. 집을 지을 때 짓는 곳만 건물이 되고 완성된 집이 된다. 신앙에 있어서도 행한 것만 부활되어 그 육도 완전한 자로 부활되고, 그 영도 육의 행실에 따라 부활되어 생명권에서 사는 영이 된다.

이 시대 나의 섭리역사로 온 너희들도, 또 나 예수를 믿는 세상 모든 자들도 나의 재림의 대상자로서 시대 부활이 무엇인지 육이 알고 행하여 영이 온전한 신부로 부활되어야 한다. 육이 행하는 대로 영이 부활되니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온전하게 부활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에 최고의 부활을 하는 것이다. 이 부활을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하고 있다. 이 부활이 2010년 동안 지금까지 나 예수를 믿은 자들의 최대 부활의 역사다.

이 시대 신부급의 부활을 한 자들의 영만이 나 예수가 재림하여 오면 천사장이 나팔 불 때 부활된다. 육이 죽은 자들은 그 영들이 영계에서 기다리다가 나의 재림의 때에 나를 맞아 휴거되어 하늘나라로 간다. 육이 살아 있는 자들은 영도 육도 휴거의 몸으로 부활된다. 육은 휴거의 몸으로서 땅에서 신부로서 살게 되고, 영은 휴거된 부활의 영으로 나 예수를 따라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월명동 그 산골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활되었듯이 너희도 시대 말씀을 듣고 온전히 부활하기를 축복한다.

중고등부들 중에 아직도 헛된 것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고 행실의 부활을 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불구자와 같은 자들이다. 부활하여라.

대학부,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들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부활되었으나 온전히 부활되지 않은 자들이 있으니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온전히 하고 행실을 온전히 하여 부활되고 나 예수와 일체 되기를 원한다. 죽은 자의 행실은 자기 영혼을 천국급으로 부활하지 못하게 한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이다.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아. 회개하여 부활하여라. 나 예수는 죽은 자들을 다 안다. 또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 부활할 것이 있으니 부활하기를 바라고, 행실로도 못 한 것을 꼭 행하여 이 시대 높은 차원 급의 생명권으로 와서 살아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주 예수니라. 살롬.

<영상4>

<자막> 부 활

<성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24-29)

① 선생님 조건 세우고 말씀 받는 모습 /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시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며 다음 자막과 말씀 (청중 역사 보여 주기.)

<자막과 말씀> 나는 요한복음 5장 24~29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재림을 맞게 하기 위해 내가 보낸 자, 곧 가장 먼저 신부의 조건을 세워 신부의 부활을 이룬 너희 선생을 통해 시대 복음을 전하여 너희를 시대 중심권인 섭리역사로 불러와 신부급 부활을 시켜 왔다.

② 구약 4000년 / 신약 2000년 / 성약 1000년 (재림역사)



<자막과 말씀> 구약 4000년은 사망권 속에 죽어 있던 시대였다. 종급 시대로서 종의 몸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4000년 구약역사가 끝나고 나 예수가 와서 신약의 새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믿고 새 시대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은 시대 그 육도 영도 구시대 사망권에서 나와 새 시대 신약 생명권으로 부활되었다./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나는 영의 몸으로 2000년 동안 신약역사를 펴 왔다. 이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는 성약 재림의 때가 왔다. 이 시대 성약 말씀을 듣고 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신부로 예비하고 사는 자는 구시대 신약 사망권에서 새 시대 성약 생명권으로 나와 부활한 육과 영이 되었다.

③ <자막>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요한계시록 7:4)

-섭리역사 사람들의 모습

<자막과 말씀> 시대 말씀을 듣고 나의 재림을 맞게 하기 위해 신부로서 준비한 자들이 인 맞은 자들이다. 이 말씀을 믿는 너희가 나의 재림을 위해 인 맞은 자들이다.

④ <자막> 섭리역사는 성약 1000년사의 기초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상 최고 부활의 역사다.

-육이 신부급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 영도 신부급으로 변화된 모습

<자막과 말씀> 이 시대 부활이 무엇인지 육이 알고 행하여 영이 온전한 신부로 부활되어 나의 재림 때 나의 신부로서 나를 맞는 자만이 나의 뜻을 이룬 자요, 최고의 부활을 이룬 자다.

⑤ 월명동 골짜기가 자연성전으로 부활된 모습

<자막과 말씀> 월명동 골짜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활되었듯이, 너희도 나의 부활을 맞아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더 새롭게 부활되어라. 살롬!

<축 도>

지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하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